

☒ 교무금 납입세대 (2018년 03월 31일 ~ 04월 06일)								
반	세대주	납입월	반	세대주	납입월	반	세대주	납입월
7	조형래(울리아노)	1~3	8	윤석고(안셀모)	3	5	조민(미카엘)	4
8	조정희(막달레나)	5~6	7	손지수(요셉)	1~5	16	이형두(하상바오로)	4
9	백대륙	3~4	7	박윤동(요셉)	4~5	16	김원규(알폰소)	1~3
3	박순제	3	8	김윤화(폴로렌시아)	4	4	이양순(모니카)	4
12	이수안(스텔라)	4	4	주태영(사도요한)	1~2	10	양말순(아가다)	3~4
16	윤덕봉(F.하비에르)	4	4	노미애(가브리엘라)	4	5	김인숙(아가다)	4
10	하초자(카타리나)	4~5	6	채나진(베로니카)	4	7	김점순(아녜스)	4
16	박영문(대건안드레아)	3~4	4	안정옥	4	8	김영순(실비아)	4~5
11	이응길(요한)	4	13	박정숙(데골라)	2~3	8	김재기(빈첸시오)	4
9	함정개(막시마)	7	7	이진희(마르타)	1~4	3	김수창(베드로)	1~4
☒ 교구사업모금 (2018년 03월 31일 ~ 04월 06일)								
8	김윤화(폴로렌시아)	4	16	윤덕봉(F.하비에르)	4			

☒ 지난주 재정연왕 ☒ (03월 25일 ~ 03월 31일)																																					
<table><tr><td>교무금</td><td>₩ 1,935,000</td></tr><tr><td>주일헌금</td><td>₩ 842,000</td></tr><tr><td>교구사업모금</td><td>₩ 915,000</td></tr><tr><td>수난성지주일</td><td>₩ 533,000</td></tr><tr><td>수난성금요일</td><td>₩ 400,000</td></tr><tr><td>군중후원금</td><td>₩ 11,000</td></tr><tr><td>성소후원금</td><td>₩ 9,000</td></tr><tr><td>기타후원금</td><td>₩ 26,000</td></tr><tr><td>잔액</td><td>₩ 4,836,176</td></tr></table>	교무금	₩ 1,935,000	주일헌금	₩ 842,000	교구사업모금	₩ 915,000	수난성지주일	₩ 533,000	수난성금요일	₩ 400,000	군중후원금	₩ 11,000	성소후원금	₩ 9,000	기타후원금	₩ 26,000	잔액	₩ 4,836,176	<table><tr><th colspan="2">지 출</th></tr><tr><th colspan="2">교구분담금 외 10건</th></tr><tr><th colspan="2">₩ 4,640,820</th></tr><tr><td colspan="2"></td></tr><tr><th colspan="2">미사참례자 수</th></tr><tr><td>토요미사</td><td>52명</td></tr><tr><td>교중</td><td>157명</td></tr><tr><td>저녁</td><td></td></tr><tr><td>총인원</td><td>209명</td></tr></table>	지 출		교구분담금 외 10건		₩ 4,640,820				미사참례자 수		토요미사	52명	교중	157명	저녁		총인원	209명
교무금	₩ 1,935,000																																				
주일헌금	₩ 842,000																																				
교구사업모금	₩ 915,000																																				
수난성지주일	₩ 533,000																																				
수난성금요일	₩ 400,000																																				
군중후원금	₩ 11,000																																				
성소후원금	₩ 9,000																																				
기타후원금	₩ 26,000																																				
잔액	₩ 4,836,176																																				
지 출																																					
교구분담금 외 10건																																					
₩ 4,640,820																																					
미사참례자 수																																					
토요미사	52명																																				
교중	157명																																				
저녁																																					
총인원	209명																																				
☒ 광고 ☒																																					
<table><tr><th colspan="2">우리농이야기 (전화 070-8853-7148)</th></tr><tr><td colspan="2"><협조요청></td></tr><tr><td colspan="2">* 결제금액 10,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tr><td colspan="2">(카드 수수료 부담이 큼)</td></tr></table>		우리농이야기 (전화 070-8853-7148)		<협조요청>		* 결제금액 10,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큼)																													
우리농이야기 (전화 070-8853-7148)																																					
<협조요청>																																					
* 결제금액 10,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큼)																																					

제1041호 2018년 04월 08일

주보생인 성 베드로

산오주보

부월 제2 주일

마산교구 산호성당 / 마산합포구 산호남12길 16 (산호동)

홈페이지 : http://san.cathms.kr

2018年

<교회 전승에 비추어 본 하느님의 자비>

성경에서 자비란 깊은 동정의 마음, 상대를 도와주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뿐만 아니라 '관대한 용서'를 의미한다. 이는 하느님과 계약 맺은 백성을 구원하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비는 동정심, 용서에 충실성이 더해진 개념이다.

구약에서 보면 자비나 동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자궁을 뜻하는 단어 '레헴'에서 유래됐다. 가족적 사랑과 하느님의 충실함, 변함없는 사랑 등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예수의 자비는 구제와 치유의 의미로 이해됐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 보이셨고, 인간은 창조주를 본받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약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들며 "회개는 인간 세계에서 사랑의 작용과 자비의 출현을 보여주는 제일 구체적인 표현"이라면서 "자비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적 메시지의 근본을 이루며 그리스도 사명의 본질적 능력을 이룬다."고 말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미사시간			예비사교리	전 와	
평 일	월요일	오전 6시30분	수요일: 오전 미사 후	사무실: 241-6748 FAX: 242-6748 사제관: 241-6747 수녀원: 241-6749 우리농: 070-8853-7148	
	화,목요일	오후 7시30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수,금요일	오전 10시30분			
주 일	토요일 (주일학교)	오후 6시	본당교육안내		
	낮미사	오전 10시30분	성경공부; 04월 12일(목) 미사 후 (과목 : 역사서1)		
	저녁미사	오후 7시			

